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여정의 감성적 이미지에 관한 도자 표현 연구

- 제주올레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on the Subject of Emotional Images in the Journey of Jeju Olle

공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조형디자인학과

이 지 혜

2011. 1

석사학위논문

여정의 감성적 이미지에 관한 도자 표현 연구

- 제주올레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on the Subject of Emotional Images in the Journey of Jeju Olle

지도교수 노 혜 신

이 논문을 미술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 1

공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조형디자인학과

이 지 혜

dCollection @ kongju

석사학위논문

이 지 혜의 미술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11. 1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공 주 대 학 교 대 학 원

dCollection @ kongju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3
1. 여행의 일반적 고찰 ····· 3
2. 여정에 관한 고찰 ····· 7
3. 제주올레에 관한 고찰 ····· 12
4. 여정을 소재로 한 조형 작품 연구 ····· 21

III. 작품 제작 방법 ····· 28
1. 소지 ····· 28
2. 성형 ····· 29
3. 유약 및 소성 ····· 30

IV. 작품 연구 ····· 31

V. 결 론 ····· 51
참고 문헌 ····· 53
ABSTRACT ····· 55

dCollection @ kongju

표 목 차

[표 1] 장 그르니에 (Jean Grenier) ····· 4
[표 2] 토마스(J.A. Thomas) ····· 5
[표 3] 탐방로의 국·내외 사례 ····· 6
[표 4] 혼합토 색소지 시험편 (단위 %) ····· 28
[표 5] 혼합토 색소지 시험편 (단위 %) ····· 29
[표 6] 산백토 색소지 시험편 (단위 %) ····· 29
[표 7] 무광 흑유 조합비 (단위 %) ····· 30

Collection @ kongju

그 림 목 차

[그림 1] 길 ····· 13
[그림 2] 돌담과 해병대길 ····· 15
[그림 3] 산담과 밭담 ····· 15
[그림 4] 올레 리본 ····· 16
[그림 5] 올레화살표 ····· 16
[그림 6] 한라산 ····· 17
[그림 7] 용눈이 오름 I ····· 17
[그림 8] 용눈이 오름 II ····· 18
[그림 9] 김영갑의 오름 ····· 18
[그림 10] 숲길 ····· 19
[그림 11] 위에서 바라본 곶자왈 ····· 19
[그림 12] 곶자왈의 생태계 ····· 20
[그림 13] 별이 빛나는 밤, 어머니 같은 지구, 유기적인 에너지의 패턴 ··· 22
[그림 14] 금으로 된 가시가 있는 휘어진 철사, 날소 장식이 있는 톱날 모양의 리본 ····· 22
[그림 15] 철망 연작, 교토 브로우치 ····· 23
[그림 16] 산속의 계단, 치유, 물의 기도, 타워 ····· 23
[그림 17] LA로 가는 평야, They keep getting bigger ····· 23
[그림 18] Have-Not, Samba, Untold Tales ····· 24
[그림 19] Untitled Vessel, Arboreal Floor Brooch, Perfume Bottle Pair ·· 24
[그림 20] Object of Consequence, Object of Consequence ····· 24
[그림 21] The sky weaver, firework, everyday saint, the phoenix seeker25
[그림 22] Journey box Ⅳ-resting, journey1, Come back with a bag, where should I go to? ····· 25
[그림 23] 여행 ····· 26
[그림 24] 다시일어서다, 젊음의 순간, 우리함께, 우리만의쉼터 ····· 26
[그림 25] 물허벅, 제주사람, 억새를 담은 돌 ····· 26
[그림 26] 함께라면, 바람이분다 ····· 27

dCollection @ kongju

[그림 27] 제주돌 제주바람 ····· 27

dCollection @ kongju

작 품 목 차

[작품 1] 오름에 오르망 ····· 32
[작품 2] 봉 봉 봉 ····· 34
[작품 3] 한라 Ⅰ ····· 36
[작품 4] 한라 Ⅱ ····· 38
[작품 5] 한라 Ⅲ ····· 40
[작품 6] 소로소로 ····· 42
[작품 7] 담 Ⅰ ····· 44
[작품 8] 담 Ⅱ ····· 46
[작품 9] 담Ⅲ ····· 48
[작품 10] 곶 ····· 50

dCollection @ kongju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 시대는 물질적 풍요에 비하여 정신적 빈곤이라는 난제에 빠져있다.[1]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는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부분 해소 되어왔다. 하지만, 그것을 영위해야 하는 인간은 정작 물질을 위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통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퇴색시켜온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사회가 거대화됨에 따라 고립과 소외로 인한 인간 정체성의 위협은 결국 소통 행위를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 교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집단의 욕망과 개인의 만남으로 변질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방대한 정보 속에서 개인은 점점 개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되는 정신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소외(疏外, alienation)란, 일반적으로는 사귐이 멀어진 상태이며 좁은 의미로는 정신 착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철학에서는 자기소외의 뜻으로 사용한다. 즉,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잃은 비본질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2] 이러한 인간의 내재된 불안으로 인한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는 가족기능의 회복, 공교육의 보편성 확보, 공동체 참여, 제도적 정책 마련 등 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통의 단절에 따른 인간소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3]

본 연구는 인간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내적 소통의 결과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도자로 표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타아와의 진보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내적 소통의 기회로 자신을 '낯섬'의 공간에 위치해 봄으로써, '떠남'과 '되돌아옴'이라는 여정(journey)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내적 소통의 감성 이미지와 풍경 이미지를 도자로 표현하고자 한다.

---

1) 조윤환 「사회적 소통에 관한 조각이미지 연구」 홍익대학교 2009 p. ii
2) 위의 책 p.4
3) 위의 책 p.2

dCollection @ kongju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방법을 통하여 내적 소통을 위한 여정의 감성 이미지와 풍광 이미지를 도자로 표현하고자 한다.

첫째, 여정을 위한 여행의 개념과 목적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현 사회의 문제인 인간소외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관점에서 여행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시작과 끝으로 대변되는 여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자아 발견의 과정을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 이미지들에 대해서 서술한다.

셋째, 최근 국내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소통의 시발점으로 인식되는 제주 '올레'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고, 올레에서 얻는 풍광 이미지들을 길, 산, 숲으로 분류하여 접근한다.

넷째, 기존 연구 사례들과 비교하여, 여정이라는 경험을 통해 얻는 내적 소통의 의미가 현 사회의 인간소외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 방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의 과정으로부터 도출한 이론적 결과를 토대로, 여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이미지와 '올레' 풍광의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작품들을 조형화하였다. 작품 제작 방법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 표현을 위해 핀칭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사각형태의 도벽 표현을 위해 판 성형을 하였다. 소지는 조합토와 분청토에 샤모트를 배합하여 만든 혼합토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투박한 질감 표현을 하고자 하였으며 의도에 따라 일부 안료를 첨가 하였다. 표면장식으로는 산백토에 안료를 첨가한 색소지를 붙이고, 날카로운 도구로 눌러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약은 색감과 장식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무광흑유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시유 후 스펀지로 닦아내어 자연스러운 색감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소성은 전기가마에서 800℃를 마침 온도로 8시간 동안 1차 소성을 한 후, 소지에 따라 1250℃~1300℃를 마침 온도로 10시간 동안 산화염 하였다.

dCollection @ kongju

II. 이론적 배경

1. 여행의 일반적 고찰

여행이란 일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든 이동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며, 교통수단에 의존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로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에 관계없이도 행해지는 것이다.[4)]

리트레(Littré)[5)] 사전에 따르면 여행이란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이르기 위하여 옮겨가는 과정'이다. 일본의 오바야시(大林正二)는 '여(旅)'자는 '방(方)'자와 '인(人)'자를 합성시킨 것으로서,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을 뜻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행(行)'자는 여행의 본질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상 '~로 간다.'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영어 상 사전적 의미는,

△ travel : 여행을 뜻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말, 주로 외국 먼 곳으로 장기간에 걸친 여행,

△ trip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멀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말하며, 특정 업무나 놀이(pleasure)의 목적,

△ tour : 보통 운동경기 팀이나, 연예인 단체, 혹은 정치인들이 계호에 따라 예정된 곳을 돌아다니면서 경기나 공연을 할 때 쓰이는 말,

△ journey : 비교적 긴 여행하는 것, 꼭 돌아온다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음

그 외에 voyage(항해, 탐험), excursion(유람, 소풍)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여행에 대한 사전적 정의 중에서 감성적 의미를 포함한 '여정(journey)'을 지칭한다.[6)]

독일의 여가학자인 크리펜 도르프(Krieppendorf)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을 '살기 싫은 곳', '지옥과 같은 곳', '이런 상태로 오래 살면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곳', 그러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묘사하면서, 인간은 살기 위해

---

4) 박호표 「新관광학의 이해」 학연사,2004, p.8~11

5) 리트레(Paul-Emile Littré, 1801-1881):프랑스의 언어학자. 《프랑스어사》(1862),《프랑스어사전》(1863~1873)을 편집했고, 《오귀스트 콩트와 실증철학》(1863),《철학적 관점에서 본 과학》(1873),《실증철학 및 현대사회에 관한 단편들》 등 주요 저서가 있다.

6) 김인경「여행(journey)이미지에 관한 금속조형 연구」숙명여자대학교, 2009,p3~4

dCollection @ kongju

서,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비록 순간적이고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떠나는 그 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잊길 원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면 쉽게 부응하게 되기 마련이다. 즉,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의 충동으로서 여행은 도망의 욕구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준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단적으로 명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 그르니에(Jean Grenier)[7]와 토마스(J.A. Thomas)는 각각 다음과 같이 여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표 1] 장 그르니에 (Jean Grenier)

유 형	목 적
필요에 의한 여행	유목민, 외교 사절단
강압에 의한 여행	포로(수용소 이동), 유배, 망명
의도적인 여행	이민, 은퇴
침략적인 여행	국제 무역(노예 매매 등), 선전(학술회의, 선교), 십자군 원정
호기심에 의한 여행	탐험, 기분전환, 관광
시간 조작을 위한 여행	유토피아 / 유크로니[8], 미래로 펼쳐지는 여행 (예: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초월을 위한 여행	통과의례, 고행, 순례[9]

7) 장 그르니에(Jean Grenier) : 프랑스의 소설가/철학자. 작품은 《사력의 물가》(1955),《존재의 불행》 등이 있다.
8) 꿈속의 어떤 시간, 유토피아와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Kronos)를 어원으로 삼고 있다. 유크로니(Uchronie)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9) 장 그르니에, 김용기 역 「일상적인 삶」 민음사,2001, p.18

dCollection @ kongju

[표 2] 토 마 스 (J.A. Thomas)

유 형	목 적
교육 문화적 동기	타국의 견문 확대, 명소 감상, 새로운 것의 이해, 특별행사 참여
휴식과 즐거움 추구	일상성 탈피, 즐거운 시간 향유, 낭만적 경험 추구
종족 지향적 동기	조상 생활 터의 방문, 종족의 묘지방문
기타 동기	기후, 건강, 스포츠, 경제, 모험, 우월성, 동조, 역사체험, 세상을 알고자 하는 욕망[10]

또한 관광의 의미로 살펴보면 기원전 8세기의 역경(易經)에서 유래한 '관국지광(觀國之光)'의 줄임말로서 '그 나라의 우수한 문화나 역사의 빼어난 요소를 보고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문화나 역사의 빼어난 요소를 보는 방법이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만지고, 느끼며, 깨달아 보는 것이라 할 때, 최근 관광을 세 가지로 분류 해 볼 수 있다.

△ 문화관광(Cultural Tourism)[11]
△ 체험관광(Experiential Tourism)[12]
△ 생태관광(Eco-Tourism)

인간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고,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문화욕구를 또한 증대하는가 하면 관광지의 문화와 유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목적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 활동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의 한

10) 이광원「여행학개론」학문사, 2000, p.21
11) 목적지나 경유지 등에서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관광
12) 여행으로 얻는 환경파괴를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점을 두는 관광을 말한다.

dCollection @ kongju

갈래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다.[13]

세계 관광기구(WTO)의 1985년 연구 논문에서 “문화관광이란 협의로는 ‘연구여행(탐구여행), 예술문화여행,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여, 유적지 및 기념비 탐방, 자연/민속예술기행,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 동기에 의한 인간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의의 개념은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행동’이다.” 라고 정의한다. 결국 문화관광이란 포괄적으로 타국이나 타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적인 행동양식을 접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반면, 오늘날의 관광은 단순히 풍경, 풍습을 구경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문화, 예술, 역사를 배우고, 여가를 즐기며, 사람을 사귀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 관광은 차량 속에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며 직접 접하고 즐기는 동적인 관광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도보 여행은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자는 웰빙(Well-being) 열풍과 함께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여유와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널리 각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추세 속에서 자연과의 접촉, 건강관리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탐방로 문화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내·외 탐방로가 개척이 되었다.

[표 3] 탐방로의 국·내외 사례

탐방로의 국외 사례	탐방로의 국내 사례
카미노 데 산티아고	남한산성
시코쿠 88개의 사찰순례	제주 올레길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지리산 둘레길

13) 구효진「문화관광루트 기획 방안 연구 : 유럽 문화관광루트 개발사례 분석과 적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2007,p.1

1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1989, P.35

dCollection @ kongju

2. 여정에 관한 고찰

여행한다는 것은 길을 떠난다는 것이다.[15] 길이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16]을 뜻한다. 길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기능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누군가의 발길이 닿아야 숨을 쉬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 점에서 길은, 그곳에 이른 모든 사람들의 온기를 머금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현재 자신이 머무른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의 떠남이 여행이라면 그 여행의 결심부터 마침까지의 과정을 여정(journe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을 겪게 되는 여정의 경험은 혼자이면서도 함께 일 수 있는 시간이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내적사유의 출발점이자 타아와 소통하는 첫 걸음의 시작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여정은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넘쳐나는 지식·정보의 양만큼 인간의 삶이 행복한가? 라는 논지에서 시작될 수 있다. 현대의 삶이 행복과 비례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귀착된 삶 속에서 보다 주체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정은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래서 여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좀 더 가까이 공감할 수 있는 여유와 실천력을 배우는 자아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여행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앞을 보고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수많은 기억으로 채워진 삶을 되돌아보는 여정이기도 하다.[17] 따라서 여정으로 얻는 내적사유를 통해 어떠한 상태나 상황에 놓여 있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18] 건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가짐의 고조가 중요하며 그것은 여정으로 얻는 자연스런 소통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15) 김재기 「여행의 숲을 여행하다」 향연, 2010, p.164
16) 네이버 국어사전
17) 장자영 「떠나라 죽을 만큼 목마르다면」 성하, 2004, p.책머리에
18) 류경희 「나를 찾아 인도로 떠나자」 규장각, 1997, p. 278

dCollection @ kongju

도전: 여행이란 두려움을 넘어서는 일이다.[19] 두려움은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로막아 인간을 나약하고 종속적인 상태에 가둬두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일 수 있다. 종종 여행은 자유를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표현되곤 한다. 이때 자유란 두려움이 부재하는 상태라고 판단되며 존재에서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20] 여정의 시작은 완전한 자유를 위한 도전이다.

모험: 여행의 존재론적 의미와 인간학적 가치를 잘 드러내주는 키워드는 '모험(adventure)'이다.[21] 굳이 특별한 체험이나 도전이 아니더라도 여행은 이미 그 자체가 충분히 모험적이다. '다름'과 부닥치게 되는 그 첫 순간 기본적으로 안락하고 익숙한 집과 고향마을, 자신이 살던 도시와 자신이 태어난 곳을 벗어나서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의 시작이다.[22] 또한 파악되지 못한 새로운 상황과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을 위치시키는 행위[23]로 바깥 세계와 나의 내면이 직선으로 대면했을 때 문득 일어나는 충격과 그 끄트머리에 이는 싱싱한 의문의 연속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것은 그런 도전을 통해서만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4]

전투: 누구나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 여행을 하지만, 여행하는 동안 삶 그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조차도 희미해져 버린 삶 속에서 전력투구하며 살아온 결과가 지금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에서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 쪽으로 부등호가 기우는 순간,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것[25]이며 이미 일상 속에서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극복의 의미로 일탈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때 어쩌면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할 전투(battle)를 통해 반드시 얻어야 할 값진 결말이

---

19) 허경희「인문학으로 떠나는 인도여행」인문산책 ,2010, p. 74
20) 류경희 「나를 찾아 인도로 떠나자」규장각, 1997, p 89~90
21) 김재기 「여행의 숲을 여행하다」향연, 2010, p.187
22) 위의 책 p.189
23) 류경희 「나를 찾아 인도로 떠나자」규장각, 1997, p 251
24) 김재기 「여행의 숲을 여행하다」향연, 2010, p.196
25) 장자영 「떠나라 죽을 만큼 목마르다면」성하, 2004, p 284

dCollection @ kongju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여행에서의 전투는 일상생활에서 편히 누려왔던 모든 것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돌발 상황 속에 자신을 던져봄으로써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과 마주하고 현지인의 삶을 거울삼아 자신의 삶 또한 재고 해 볼 기회를 갖는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여행지는 특별한 장소지만 그곳에 사는 현지인에겐 삶의 터전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관적 사고로부터 타인의 사고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됨은 또 다른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발견: "진정한 발견(Discovery)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내는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데 있다."[26] 꿈과 호기심이 여행을 발생하는 근원이라면 새로운 발견과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여행이 주는 당연한 결과다. 여행이 삶을 대처하는데 미숙한 인간들을 일깨우는 특별한 방법임은 틀림없다. 인터넷으로 쉽게 모든 정보를 얻게 된 지금,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미지의 사실을 발견해 왔던 여행의 전통적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앎의 근원은 경이로움이다.

현대문명은 이른바 실용위주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실용위주의 지식들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알고 싶어 하는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에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느끼고 다시 그 호기심을 지적 욕구로 끌어올리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배우는 것은 단순한 실용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발견이 가져다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은 여행으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여행을 통해 발견하는 가치는 우리가 기준하고 기대하는 것의 항상 그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여행을 통해 얻게 되는 살아있는 지식, 앎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의 막연한 거부감에서 자유롭게 하여 사유를 확대하고 심화하는데 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알랭드 보통은 "사실을 찾아 나선 여행자는 구경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여행자에 비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다." 라고

26)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dCollection @ kongju

설명하였다. 여행은 오감의 직접적 체험을 통해 평소 모르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하게 만든다. 이것은 여행이 주는 다양한 자극들이 해안을 열어주고 독창적인 사유를 추동하기 때문이다.[27]

깨달음: 모든 여정은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길을 가리키는 한자 '道'는 본래 "천천히 걸으며 생각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행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28] 이렇게 여행이 주는 깨달음(Enlightenment)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지만, 모든 깨달음이 그리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진리인 그것은 쉽게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에서부터 여행이 주는 긍정적 사고의 바탕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바탕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러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 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도 마찬가지 일 수 있다. 흔히 여행은 자신을 찾는 행보라고 표현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쌓아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성실한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 철저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다.[29]

자유: 모든 여행은 꿈과 환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꿈의 절반은 '자유(Freedom)'에 대한 갈망이다. 자유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건 인간성 안에 내재된 불명의 경향이며, 모든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어떠한 상태나 상황에 놓여 있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30] 여행은 자유다. 그리고 모든 놀이는 자유와 여유를 전제로 한다. 인간의 삶에서 놀이가 중요한 이유는 놀이야말로 강제나 외적 필연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롭고도 창조적인 활동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

27) 김재기 「여행의 숲을 여행하다」 향연, 2010, p.244
28) 백경훈 「신의 뜻대로」 이가서, 2007, p.322
29) 허경희「인문학으로 떠나는 인도여행」 인문산책 ,2010, p.72
30) 류경희 「나를 찾아 인도로 떠나자」 규장각, 1997, p.278)

dCollection @ kongju

철학자 샤르트는 자유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며, 인간을 다른 사물들과 구별해 주는 징표라고 했다. 전통 철학의 개념 구분에 따르면 자유는 필연의 반대말이다. 자유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는 일종의 무한가능성인 셈이다. 텅 빈 無의 상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자유다. 그리고 이 텅 빈 상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우리를 조금씩 메워가는 것, 그렇게 해서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 떳떳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다운 삶, 바람직 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이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지만, 사실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에 진정한 자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에서 종종 큰 재미나 일탈적 요소를 갈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안정적인 삶속에서 꿈꾸는 자유는 때때로 여행을 통해 실현되길 바란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행을 떠난다는 행위로부터 오는 결과가 아닌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전제 되어야하는 자신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후의 여행은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느끼게 되며 여행지에서의 시간을 보다 살아 움직이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몸은 고단하고 주머니는 가벼워도 사회가 보는 여행자에 대한 시선은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어울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잘 조화되어 함께한 다는 것이다.[31] 개인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일 때 타아와의 결합에 수월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효과는 배가 된다. 오늘날 인간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본 논문은 개인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어떤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시작은 개인에게서 오는 것이며 만약 개인이 착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 주변에 긍정적인 환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이 강조됨은 지나치지 않으며 본 연구는 여정을 통하여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는 상태가 아니라 자족하는 상태임을 깨닫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함을 느낀다고 보았다.[32] 그로인하여 다시금 느

31) 최용준 「나를 찾는 길」 대전, 2009, p.76

Collection @ kongju

끼게 되는 이 행복감과 걸림 없는 자유로움은, 시선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에 머무르게 되며 신체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바탕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때 자아와의 건강한 소통을 시작으로 모든 타아와의 어우러짐이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고 愛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자세를 겸비할 때 내부의 열린 마음을 갖는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관계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통이며 긍정적 환경을 창조하고 그 결과로서 당신은 평화와 만족을 느낀다.[33]

행복: 지나간 여행의 시간들이 인간에게 피상적으로 가져다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시간들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여정은 새로운 가치발견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사고로의 변화로 볼 때 길 위에서의 행위자체를 행복(Happy)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3. 제주올레에 관한 고찰

올레는 집 대문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며 고어로는 오라, 오래라고 하며, 문을 뜻하는 순 우리말 오래가 제주에서 올레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레는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다. 현무암으로 쌓은 집으로 가는 골목 올레는 집과 마을을,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길이며, 구불구불 이어지는 제주 돌담길의 미학을 보여주는 길이다. 제주올레는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풍광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제주를 세계와 이어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쉽게 발음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발음상 제주에 '올래?'라는 초대의 의미도 담고 있다.

---

32) 위의 책 p.131
33) 허경희「인문학으로 떠나는 인도여행」인문산책 , 2010, p.275~276
34) 장자영 「떠나라 죽을 만큼 목마르다면」성하, 2004, p.287

dCollection @ kongju

(1) 길

[그림 1] 길

길은 사전적으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뜻한다. 또한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을 일컫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길의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정의 의미도 길에 포함됨을 뜻 한다.

여정에서의 길의 의미는 참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다. 여행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길은 삶으로 종종 비유되곤 한다. 그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걸음에서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시작은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얼개로 짜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시간과 공간으로써의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길은 매우 여러 가지다. 또한 그 길을 이용하는 목적이나 방법들도 길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그 중에서도 걷기를 통한 이동은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하지만 인류의 기원과 동시에 시작된 걷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속도의 경쟁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다른 이동수단보다 걷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많은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

dCollection @ kongju

것은 걷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에 의한 결과로 과거에 걷기는 단순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겼다고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엔 물리적으로 같은 걷기 행위이지만 철학적으로 다르게 접근하여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걷기라는 주제는 보편적인 행동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걷기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기쁨과 자유는 제주 올레길 걷기의 증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뭍과도 다르고 다른 섬과도 차별화된 땅이 제주도다. 당연히 길의 모습도 다르다. 해변 길이 있는가 하면 바닷길이 있다. 산허리를 넘어가는 길도 있다. 길은 모두 다르지만 그 길들은 모두 바다와 연결된다. 바다로 연결된 길을 통해 사람들은 물질을 하러 나가거나 항해를 위해 나간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모든 길은 바다와 사람을 잇는 다리이다.

올레는 마을 안길에서 집의 대문격인 정낭까지 이어지는 공간으로서 길 양옆을 돌담으로 쌓았다. 제일 먼저 곡선으로 이어진 골목길, 즉 올레에서 1차로 걸러주고 이어 집 울타리인 울담에서 다시 한 번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는 바람의 영향을 분산시켜 그 힘을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무너질 듯, 끊길 듯 하면서도 온 섬을 이어온 제주 돌담은 생명과 제주사람 특유의 공동체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초가와 올레 등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35]

돌과 돌만으로 짜여진 제주의 돌담은 일종의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돌담에는 작은 힘 하나하나를 모아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제주사람의 의지가 고스란히 스며든 것이다. [36] 또한 모호했던 사유재산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방목중인 말과 소가 무단으로 들어와 곡식을 먹는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시작되는 제주의 강한 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추위를 막아내는 역할까지도 돌담의 몫이었다.[37]

---

35) 위의 책 p.14~23
36) 위의 책 p.25
37) 고성보, 강정효, 최용복, 양진철 「제주의 돌담」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p.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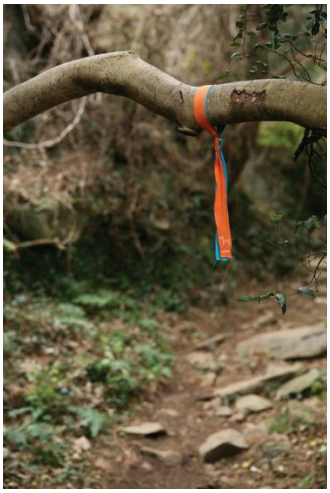
dCollection @ kongju

[그림 2] 돌담과 해병대길

[그림 3] 산담과 밭담

현재에도 농경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으며 나아가 올레길이라는 걷기 열풍의 주된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돌담이 주는 미학이 걷기에 의해 많이 알려지면서 올레의 대표 경관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레길 상품제작에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다. 멀리서 바라본 경작지의 갖가지 색이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조각보 같다.

dCollection @ kongju



[그림 4] 올레 리본

[그림 5] 올레화살표

초보 올레꾼[38]에게도 든든한 올레 안내표식으로 길바닥, 돌담, 전신주 등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의 화살표는 제주올레 길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인 안내표식으로 파란색은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바다를 상징하며 주황색은 제주의 감귤 빛을 상징한다. 정 방향은 파란색, 역방향은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어느 시작점에서라도 원하는 방향의 표시만 따라가면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두 가닥의 리본은 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다. 화살표를 표시하기 어려운 산길이나 바닷길 근처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보통 사람의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곳에 매달려 길을 안내한다.

여행은 낯선 곳으로의 떠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낯선 공간과 마주한 자신의 재발견에 의미가 크다. 제주 올레길을 걷는 여정은 낯선 풍광과 조우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 올레안내 표식은 낯선 풍광과는 상관없이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는 길 도우미로써 어느새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이 때 '낯섬'으로 떠나왔지만 일상에서와 같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위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8) 올레를 걷는 사람

dCollection @ kongju

(2) 산

[그림 6] 한라산

올레길은 제주의 중심에 솟아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 길과 중산간 길을 포함한다. 해발 1,950미터의 거대한 한라산은 제주의 지형을 지배함을 물론이고 제주의 지질과 기후를 결정한다. 경사가 심한 지형, 강이 없는 섬, 너른 초원, 논이 드문 척박한 산성 토질 등 지질적 특성과, 바람의 방향과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기후적 특성도 모두 한라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라산의 자연 조건은 제주사람들에게 신앙적 대상이 되기도 했을 만큼 제주 문화의 기저와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왔다. 한라산은 제주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이면서 동시에 제주사람들의 삶을 표용하고 있는 일종의 '집'이다.

[그림 7] 용눈이 오름 I

dCollection @ kongju

[그림 8] 용눈이 오름 II

[그림 9] 김영갑의 오름

사람들이 바람이 분다, 하고 말하는 것은 부는 바람의 실체를 보아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대상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오름에서 느끼는 바람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바람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바람을 사진에 담기 위해 일생을 오름에서 보낸 사진가 김영갑의 작품 속에 그가 말하려던 궁극적인 바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 형상도 없고, 물체도 없는데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환상'은 곧 노자가 말하는 '도'이다. 이러한 환상이 자연 속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고, 노자는 '도법자연(道法自然)' 즉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했으니, 자연 속에 있는 도, 자연을 따르는 도의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한, 무위자연을 추구한 김영갑작가는 눈에 보이는 오름과 보이지 않는 바람을 함께 조우함으로써 삶의 철학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의 사진 속 오름은 일몰의 역광을 받아 전경에 붙잡힌 오름의 깊고 얕은 굴곡의 변화가 주는 빛과 음영, 전경에서 후경으로 이어지는 색감의 부드럽고 미묘한 콘트라스트가 풍부한 회화적인 공간감을 부여하며, 완만하고 유려한 오름의 선과선, 형상과 형상이 만나서 풍만한 볼륨과 농염한 관능의 조형미를 연출한다. 그것은 바로 범접하기 힘든 제주 자연의 속살이라고 할 수 있다.

dCollection @ kongju

(3) 숲

[그림 10] 숲길

우리 선조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현재와 같은 인공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불과 2~3백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삶은 우리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에도 자연의 바람 소리, 물소리, 향긋한 나무냄새를 맡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숲의 경관을 보여주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활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인자의 요인으로 자연에서 인간은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림 11] 위에서 바라본 곶자왈

dCollection @ kongju

[그림 12] 곶자왈의 생태계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에 가까워 질 때 마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안긴 듯 평온함과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울증과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도심생활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자아존중의 행복감으로 변이되는 경험을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곶자왈 길은 특별한 곳이다.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란 의미이며 ‘곶’이라는 말은 제주어로 ‘숲’을 일컫는다. 현재 곶자왈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라 할 수 있지만 자연환경에 있어 제주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한 곳이며 또한 강수량이 매우 높은 제주의 특징을 잘 보완하는 자연적 특징을 갖고 있어 지하수로 보관하여 용천수로 그 역할 또한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제주의 희귀식물들과 고대 고사리종의 주된 서식지로 제주 생태계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제주 올레의 풍광적 이미지를 길, 산, 숲 세 가지로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는 올레 길 여정의 의미와 그 안에서 걷기를 통한 자아 소통의 감성적 이미지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풍광의 이미지 역시 타아와의 소통의 매개체가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kongju

4. 여정을 소재로 한 조형 작품 연구

인간의 삶에 있어 여정은 “노동 못지않게 인생에 있어 가장 충실해야 하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문자 그대로의 행복을 찾는 시간”[39]이라고 표현 되어질 만큼 일상 속의 다양한 여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예술적 표현의 소재가 되어 왔다. 여러 예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형예술 분야에도 여정을 소재로 한 독창적 표현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여정을 소재로 한 기존 조형 작품들을 사례를 소개하고, 본 연구 관점에서 작품들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3]의 크리스 램제이는 여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신선한 자극들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으며 여정으로 관찰된 사물들을 오브제를 작품화 할 수 있는 계기로 보았다. 또한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린다 왓슨 애보트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여정을 해석하고 있으며 더욱 상세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작품화 하였다. [그림 14, 15]

여정으로부터 얻는 감성을 인간과의 관계로 접근한 크리스턴 페데리기 [그림 16], 여행지의 상징적 이미지를 작품화하고 여행지의 낯선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 시각의 전환을 표현하고자한 리마스 비스 기르다의 작품 [그림 17]도 볼 수 있다.

리마스 비스 기르다의 관점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정을 관찰자의 입장으로 표현한 [그림 18]의 노이엔 슈반더는 아프리카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작품화 하였는데 여행지에서의 자신은 이방인으로 표현되어진다. 자신이 관찰한 타아에 대한 표현이지만 결국 자신이 관찰한 것은 ‘다름’속에 존재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자화상적인 양면성을 작품화 하였다.

여정의 경험으로 얻는 모든 감각의 이미지를 기록으로써 작품화 한 폴레트 베르거 [그림 19]는 여정으로 얻는 경외감에 대한 표출로써 해석할 수 있으며 빌리 진 사이드는 동일한 관점에 브로치의 기능을 부여한 장신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0]

---

39) 구자인 「도시와 빈곤」 제23호 한국도시연구소, p142~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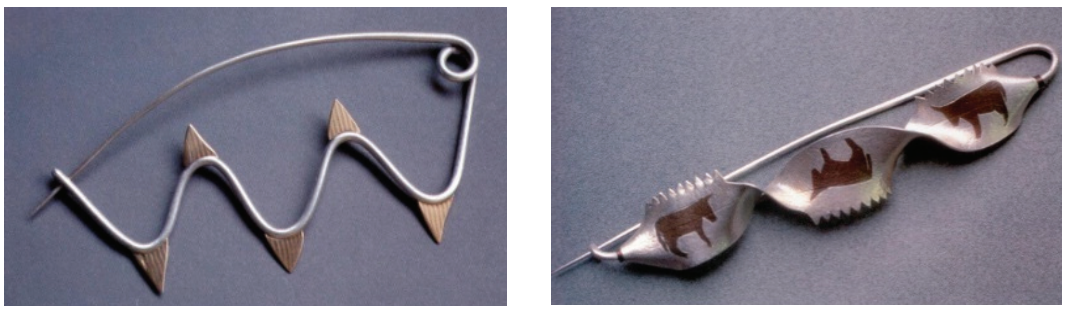
Collection @ kongju

다른 곳에 자신을 위치함으로 얻게 되는 감정과 경험을 그 사회의 역사와 모습을 반영하여 표현 하고자한 서병주는 여정을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은유적 표현을 '말'이라는 동물로 조형화 하였다. [그림 21]

김인경은 가방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반복되는 일상의 표현과 더불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오브제적인 요소로 표현하였다. 또한 공간의 비움와 채움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여정의 시간을 빈티지한 색감으로도 드러내고 있다.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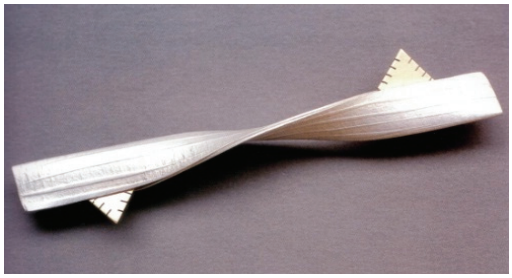
[그림 23] 박혜련은 여정을 삶에 비유하여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여행이란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각각의 조각들은 자신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의 표현이다. 이밖에 본 연구의 작업 모티브가 된 제주 자연 풍광의 표현 사례를 배은정 [그림 24], 송미자 [그림 25], 황일선 [그림 26], 고영심 [그림 27]의 작품을 통해 하고자 하였다.

[그림 13] 별이 빛나는 밤, 어머니 같은 지구, 유기적인 에너지의 패턴



[그림 14] 금으로 된 가시가 있는 휘어진 철사, 날소 장식이 있는 톱날 모양의 리본

dCollection @ kongju



[그림 15] 철망 연작, 교토 브로우치

[그림 16] 산속의 계단, 치유, 물의 기도, 타워

[그림 17] LA로 가는 평야, They keep getting bigger

dCollection @ kongju

[그림 18] Have-Not, Samba, Untold Tales

[그림 19] Untitled Vessel, Arboreal Floor Brooch, Perfume Bottle Pair

[그림 20] Object of Consequence, Object of Consequence

dCollection @ kongju

[그림 21] The sky weaver, firework, everyday saint, the phoenix seeker

[그림 22] Journey box Ⅳ-resting, journey1, Come back with a bag, where should I go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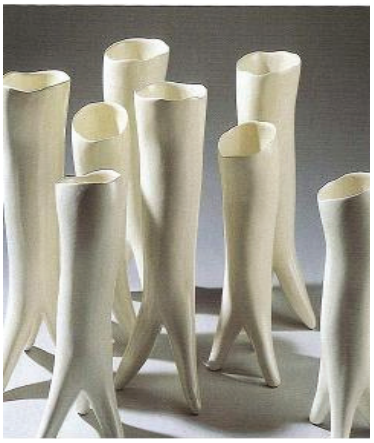
dCollection @ kongju

[그림 23] 여행

[그림 24] 다시일어서다, 젊음의 순간, 우리함께, 우리만의쉼터

[그림 25] 물허벅, 제주사람, 억새를 담은 돌

dCollection @ kongju



[그림 26] 함께라면, 바람이분다

[그림 27] 제주돌 제주바람

dCollection @ kongju

III. 작품 제작 방법

1. 소지

작품을 성형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는 소지 선택이다. 본인은 올레길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표현함에 있어 제주의 척박한 땅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담고 투박한 자연의 이미지 표현을 위해 혼합토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혼합토에는 안료의 발색을 위해 조합토와 일반조합토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샤모트를 첨가하여 배합하였다. 또한 일반 조합토와 분청토를 적정 비율로 배합한 소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크게 세 가지의 혼합토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안료를 표현의도에 따라 1%~3%가량 첨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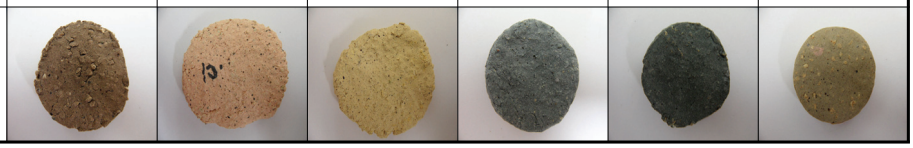
소지의 첨가한 샤모트는 거친 질감표현과 반 건조 뒤 형태의 변화를 주는 과정에 있어 파손율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전체적인 형태 성형은 혼합토를 사용하였으며 바깥 면에 장식은 산백로 만든 색소지를 사용하였다. 산백토는 백색도가 높고 소지 내에 포함된 산화철의 효과가 혼합토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으며 혼합토와 마찬가지로 안료를 1%~2% 가량 첨가하였다.

[표 4] 혼합토 색소지 시험편 (단위 %)

소지 / 소성온도	분 청 토		분청토+조합토
	무첨가	샤모트10 crom 2	2 : 1
1250℃			
1300℃			

dCollection @ kongju

[표 5] 혼합토 색소지 시험편 (단위 %)

	조 합 토					
색상	Red 1.5	L.Orage 1	Yellow 2	Blue 1	blue 2	Crom 1
1250℃						

[표 6] 산백토 색소지 시험편 (단위 %)

	산 백 토						
색상	Red 1	L.Orage 1	Yellow 0.5	L.Green 1	Green 1	D.Brown 0.5	Black 0.5
1250℃							

2. 성형

대부분의 작업은 핀칭 성형(Pinching building)으로 제작하였고, 이 밖의 작업은 코일링 성형(Coil building), 판상 성형(Slab building)으로 제작하였다.

핀칭 성형으로 동그란 형태를 만들고 좁혀진 부분을 오므려 형태를 완성하였으며 표현의도에 따라 바람을 불어, 갈라짐이나 터지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둥근 형태 아래에 붙여진 세 다리는 일정한 길이로 자른 뒤 약간 건조시켜 바깥 면을 도구로 긁어 질감을 표현하였다. 이후 반 건조

dCollection @ kongju

된 각각의 형태를 접합하고 색소지를 붙여 장식하였다. 색소지를 붙인 부분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잎맥과 줄기를 표현하였다.

긴 원통형태의 작업은 판상 성형으로 바닥을 제작하고 코일링 성형으로 형태를 완성하였다. 도벽 형태의 작업은 대부분 판상 성형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면 절단은 와이어를 사용하여 혼합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후 바깥면의 장식 기법은 위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3. 유약 및 소성

모든 작업은 무광흑유를 사용하였다. 무광흑유는 혼합토의 자연스러움을 배가시키고 자칫 가벼워 질 수 있는 색소지의 전체적인 톤을 보완하였다. 또한 시유 후 닦아내는 작업으로 음각 장식된 표면과 혼합토의 거친 질감 표현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소성은 색소지의 안정적인 발색을 위하여 전기 가마에 산화염하였다.

1차 소성은 800℃를 마침온도로 8시간 소성하였으며, 2차 소성은 1250℃를 기준으로 의도에 따라 1300℃까지의 마침온도를 하였으며 10시간 산화염 하였다. 동일한 소지를 사용하였을 경우라도 2차 소성 온도에 따른 발색 효과가 다름을 이용하여 2차 소성은 다양한 온도로 하였다.

[표 7] 무광 흑유 조합비 (단위 %)

원료	장석	규석	석회석	카오린	산화철	크롬	망간
비율	40	10	20	15	10	2	3

dCollection @ kongju

IV. 작품 연구

[작품 1] 오름에 오르망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나선 푸르스름한 새벽, 1코스 말미오름과 알오름의 둥근 곡선은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떠남'과 '돌아옴'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이것은 둥글게 이어진 하나의 타원 같이 느껴졌다.

땅 위로 둥글게 솟은 오름을 타원의 일부로 여겼으며 타원('시작', '끝')의 모두를 알고 싶어 하는 본인의 욕구를 표현 했다.

오름을 상징하는 반구의 형태에 세 다리를 접합시키는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오름의 연장선에 대한 궁금증의 한 표현이며, 다양한 근원을 뿌리로 연상해 보는 표현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을 색감으로 드러냈으며 오름에서 부는 바람의 형태를 타원의 잎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250℃

dCollection @ kongju

[작품 1] 오름에 오르망

dCollection @ kongju

[작품 2] 봉 봉 봉

벌과 같은 작은 곤충 따위가 날 때 나는 소리를 '봉'이라고 한다. 여기에 표현된 벌은 내 자신의 은유적 표현이다. 인간이 걷기를 통하여 관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고는 다소 획일적이다. 가볍게 날아 유채꽃에 앉은 벌을 보며 관찰하는 시점의 변화에 따른 사고의 전환을 꿈꾸어 보았다. 인간이 날기를 염원하는 무한한 소망은 어쩌면 관찰하는 시각의 위치에 따른 '또 다름'을 발견하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이 위치한 바로 그 자리에서도 가벼운 사고의 전환과 시각의 변화를 갖고자 노력한다면 매순간 가볍게 날아오를 듯 행복해지지 않을까. '봉, 봉, 봉.'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250℃~ 1300℃

dCollection @ kongju

[작품 2] 봉 봉 봉

dCollection @ kongju

[작품 3] 한라 I

‘손을 뻗으면 은하수에 닿을’만큼 높다는 한라는 제주도 상징이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올레길을 걷다보면 제주의 중심인 한라산의 위용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 담벼락 사이로 내민 한라봉을 보며 한라산과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손을 내밀면 한 손에 담기는 한라봉은 마치 한라산이 품고 있는 작은 씨앗과 같이 느껴진다. 싹을 틔우기 위해 에너지를 품고 있는 씨앗은 ‘한라 I, Ⅱ,Ⅲ’로 표현되었다. 제주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한라산의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전해 받고, 전해 주고 싶은 매개체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를 상징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 물허벅을 한라와 함께 표현하였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250℃

dCollection @ kongju

[작품 3] 한라 I

dCollection @ kongju

[작품 4] 한라Ⅱ

단단히 여문 열매는 다음을 위해 씨앗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한라는 초록빛으로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농익지 않은 열매의 푸른 빛은 미완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다. 줄에 매달린 한라는 외부요인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현재 주변의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나에 대한 표현이며 성숙해가는 과정의 푸른 열매로 표현되었다. 항상 주위를 감싸는 긍정적인 요인의 표현으로 자연의 이미지인 잎을 장식하였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250℃

Collection @ kongju

[작품 4] 한라 Ⅱ

dCollection @ kongju

[작품 5] 한라Ⅲ

‘한라’의 세 다리는 걷는 올레꾼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길 위에서 만큼은 그 목적이 하나로 통한다. 도로 위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걷는 수많은 올레꾼들의 뒷모습을 보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는 즐거운 소리도 살짝 엿들어 본다. 앞에 놓인 긴 형태의 한라는 앞서가는 올레꾼들을 향한 기울임의 표현이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300℃

dCollection @ kongju

[작품 5] 한라 Ⅲ

dCollection @ kongju

[작품 6] 소로소로

‘좁다란 길’을 의미하는 ‘소로’와 집 앞 골목을 뜻하는 제주 ‘올레’의 의미를 비슷하게 해석하였다. 집 앞을 나서는 첫 통로의 올레는 좁다란 골목길로 이어진다. 어디론가 향하는 첫 걸음의 시작이며 나아감의 의미로 올레 화살표를 표현하였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첫 걸음을 중첩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 선 자신을 작은 한라로 표현하였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300℃

dCollection @ kongju

[작품 6] 소로소로

dCollection @ kongju

[작품 7] 담 I

푸르른 풀 사이로 듬직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돌담은 올레꾼의 든든한 벗이 된다. 화살표를 따라 걷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진 돌담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눈에 익숙한 풍경이 된다. 돌담 옆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올레꾼의 모습이 돌담과 어우져 꾼담이 된다. 이렇게 늘어선 돌담의 모습과 꾼담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서로의 어울림과 결속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풍경으로 관계와 소통을 엿 볼 수 있는 '담 I ,Ⅱ,Ⅲ'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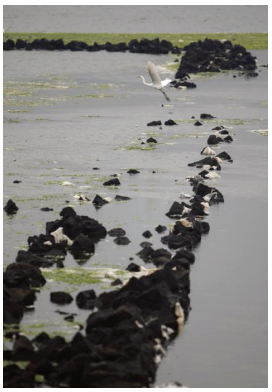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250℃

dCollection @ kongju

[작품 7] 담 I

dCollection @ kongju

[작품 8] 담Ⅱ



물위로 살짝 내비친 돌담은 마치 징검다리를 연상케 한다. 돌담은 검지만 돌로 나뉜 공간의 색은 활기차다. 획일화되지 않은 그 모습이 더욱 어울림이라는 말을 연상하게 하며 이러한 표현을 그 모습과 색으로 하고자 하였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250℃

Collection @ kongju

[작품 8] 담 Ⅱ

dCollection @ kongju

[작품 9] 담Ⅲ

높은 오름에 올라 내려다본 경작지의 모습은 제주의 다양한 색채를 보여주었다. 동그랗게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산담과 경작지를 나누는 밭담의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져 조각보를 연상케 하였다. 각자의 멋진 색도 있지만 어우러짐에 의한 미학은 더욱 깊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각자의 개성이 어우러짐에 의해 더욱 빛날 것을 기대하며 풍광을 빌어 표현하였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250℃

dCollection @ kongju

[작품 9] 담Ⅲ

dCollection @ kongju

[작품 10] 곶

숲에 곧게 뻗은 나무는 청량함을 곧게 뻗은 나무를 휘감고 오르는 넝쿨 식물은 숲의 온도와 습기를 조절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살아 숨 쉬고 늘 곁에 있는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많은 활력이 된다. 인간에게 있어 분리될 수 없는 자연적 요소를 제주 숲의 상징인 곶자왈의 넝쿨 식물을 통해 표현하였다.

핀칭기법 | 혼합토(조합토+분청토), 산백토 | 무광흑유 | 1300℃

Collection @ kongju

[작품 10] 곶

dCollection @ kongju

V. 결 론

인간은 사회 안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간의 감정적, 신념적, 행동적으로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을 영위하고 이 때 비로소 행복함을 느낀다. 다시 말해 상호 의존적인 '나'와 '타자'는 서로간의 진실함이 담긴 참된 소통[40]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면의 소통의 결과물을 도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매개체로 타아와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

진실한 내적 소통을 위한 최선은 '직접적인 자신과의 만남'[41]이며, 이러한 소통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본 연구는 여행을 통한 '여정'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있다. 여정은 사고의 유연함과 감성의 변화를 추동하며 내적인 사유를 원활하게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주고, 자신과 유리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제공한다.

자기 성찰적 여정의 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최근 널리 개척되고 있는 '탐방로'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 다양한 국내외 탐방로 중 내적 소통을 위한 감성 및 풍광 이미지를 가장 이색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제주 올레를 연구의 시작으로 삼고, 올레길을 직접 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소통의 이미지들을 도자라는 양식을 빌어 표현하고자 한다.

올레를 걸으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내적 사유의 시간들은 잃어버린 주체성의 회복을 돕는 치유의 효과는 물론, 긍정적 사고의 연장으로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타아와의 열린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는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현상을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나아가 올레길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이미지들과 자연의 풍광 이미지를 도자 예술로 표현하여 타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감성을 이미지화하고 도자 표현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는 '드러냄', 자기실현

40) 조윤환 「사회적 소통에 관한 조각이미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9,p.8
41) 위의 책 p.41

dCollection @ kongju

의 또 다른 욕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개인의 존재와 사고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여정으로 얻는 다양한 감성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표출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우며 자신이 느끼는 행복의 가치와 실현의 대안을 타인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앞으로 여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의 전시를 통하여 현대사회에 공통 관심사인 '여행'에 대해 논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보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dCollection @ kongju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정효 2003 『한라산』 돌베게

고영탁/박도성/임상희/김민국 2010『그래서 그들은 올레로 갔다』낭만북스

김광명 2006『예술에 대한 사색』학연문화사

김재기 2010『여행의 숲을 여행하다』 향연

박상우 2008 『혼자일 때 그곳에 간다』시작

벤저빈 프랭크린 2006『인생의 발견』21세기북스

서명숙 2008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걷기여행』 북하우스

서명숙 2010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길처럼』북하우스

Solnit, Rebecca. 2003『걷기의 역사』 민음사

이거룡 2003『이거룡의 인도사원순례』한길사

이광원 2000 『여행학 개론』 학문사

이덕환 2010 『웰빙과 행복』서강대학교출판부

이해선 2009 『제주올레』 터치아트

여훈 2005 『최고의 선물 :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스마트비지니스

장자영 2004『떠나라 죽을 만큼 목마르다면』성하출판

조지프 A. 아마토 2006『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작가정신

제이미 제파 200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도솔

현길언 2001 『제주문화론』 耽羅木石苑

학술지 논문

강소미 2005「상징적 선 이미지의 중첩을 통한 소통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권소윤 2010 「일상 속 여행을 통한 풍경 이미지의 표현 연구」성신여자대학교

김강현 2008 「자연을 통한 자아내면치유로서의 회화 연구」홍익대학교

김은정 2010 「자아(Ego)의 형상화를 통한 도자표현 연구」상명대학교

김인경 2009 「여행(journey)이미지에 관한 금속조형 연구」숙명여자대학교

김준기 2009 「인체조각을 통한 내면적 소통에 대한연구」성신여자대학교

dCollection @ kongju

김지윤 2008 「장기배낭여행자의 문화 경험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 '전지구화' 논의 의 관점에서-」연세대학교
송미자 2007「제주의 자연환경을 형상화한 실내 도자벽장식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오세철 2009 「로마, 깨달음의 여행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이준희 2009 「기행 일러스트레이션의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이지선 2008 「신체의 이미지로 소통을 표현한 도자조형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이지원 2008 「몸짓을 통한 인간의 심리적 소통 관계에 대한 표현연구」홍익대학교
전은아 2005「여행을 주제로 한 일상표현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조윤환 2009 「사회적 소통에 관한 조각이미지 연구」홍익대학교
조은정 2007「여행의 기록으로서 이미지와 자아성찰」성신여자대학교
최연주 2009 「소통의 부재표현 연구- 인체와 텍스트를 통하여」홍익대학교

인터넷 사이트

제주올레 http://www.jejuolle.org/
클레이 파크 http://www.claypark.co.kr/

dCollection @ kongju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s on the Subject of Emotional Images in the Journey of Jeju Olle

JeeHye Lee

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Graduate School of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 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esin R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ress on celadon the outcomes of internal communication through contemplating individual subjectivity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isolation and to improve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The chance of true internal communication can be acquired by placing one in a space of 'unfamiliarity', and this study expressed on celadon the emotional images and landscape images of internal communication acquired from the experience of 'leaving' and 'returning' based on the following process.

First, this study examined and categorized different types of travel based on concept and purpose. After then, the meaning of travel was contemplated as an active way of solving the social issue of isolation.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self-discovery that can

Collection @ kongju

occur during a journey and describes the emotional images that can be acquired in this process.

Third, the various meanings of Jeju 'Olle', which is perceived as the start point of communication for many travelers in Korea, was examined. Then, the landscape images acquired from Olle were approached in terms of trail, mountain, and forest.

Fourth, it was emphasized that the meaning of internal communication acquired from the experience of a journey is an active way of solving the problem of social isolation in comparison to preceded studies.

For ceramic expressions, this study first subjectively reinterpreted the emotional images of a journey and the landscape images of 'Olle'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The major methods of expression were pinching and plate molding. Its material was mixed clay composed of soil mix, clay, and chamotte. Color pigments were partially added for color expression and colored mixed clay was used for surface decorations. The entire celadon was lacquered in dark matte lacquer and wiped off with a sponge to emphasize the texture and color of clay. For first firing, the celadon was fired for 8 hours at 800℃. For second firing, it was fired in oxidizing flame set at 1250℃~1300℃ for 10 hours.

In conclusion, the process of imaging one's emotions and converting them to celadon can be interpreted as 'revealing' or 'desire' of self-realization as well as a process of re-establishing one's existence and thoughts. The process of visualizing and expressing various emotional images acquired from a journey was very interesting and encouraged our value of happiness and alternative view of realization with others.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oncept of 'travel', a popular interest of the modern society, by exhibiting various pieces on journey and make efforts to share sympathy and communicate through my artworks.

Collection @ kongju